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출근 몇일째부터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산재보험법상 상시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당연 적용사업장에서 출근해 근무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산재보험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3항의 규정 '부상도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사업장이 산재처리를 할때마다 변경되는 게 있는지요?

A 산재보상처리를 한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변동하는 경우와 그렇치 않은 경우 2가지가 있다.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천5백명 (계정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 보험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상처리가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과거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장이 전항 2항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재보상처리하지 않아도 보험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이웃에 사는 甲은 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의 주택 일부가 붕괴하였고 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현재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위와 같은 물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입니다.(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1991. 6. 11. 90다20206)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정신적 고통에 대하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민법 제750조, 1995. 5. 12. 94다2551).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귀하 소유의 주택이 완전붕괴의 위험을 느낄 정도하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그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
(031-874-1652)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직장인과 스트레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시시각각 수많은 자극을 받으며 살아간다.

특히 직장이라는 틀속에서 상하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직장인은 조직사회가 주는 각종 자극들에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는 이처럼 외부환경에서 유발되는 각종 자극 또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자극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거나 신체적 변화가 유발된다면 이는 곧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이 감당할 능력이 약화되거나 반복적인 자극에의 노출로 스트레스가 만성화 되어 정서적 불안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자율신경계의 지속적인 긴장이 심화되어 결국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나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각자의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인간은 주어진 역할이 없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된다 또한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도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도 도움을 준다

①휴식과 긴장해소를 위해 충분히 잠을 잔다. ②주류, 육류,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고, 야채 및 곡물,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고 탄산음료를 피하고 대신 물을 마신다. ③항시 올바른 자세를 하고 가끔 기지개를 켠다. ④정서적 안정을 위해 취미생활을 한다. ⑤가능한 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⑥매일 단 몇분이라도 햇빛을 쬐도록 한다.

특히 뇌의 혈색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손가락과 발가락의 끝마디 부분을 수시로 수도꼭지 비틀 듯이 마사지를 자주 해주면 심신이 상쾌해지고 혈압도 20~30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의정부한방병원
(031-820-7200) www.ujbhanba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자녀의 이성교제

Q 중학교 아들이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오면 채팅을 하느라 바쁩니다. 무조건 말릴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하나요.

A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시대의 흐름을 잘 알기에 차라리 터놓고 얘기하라고 어느 정도 이성교제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첨에는 우리부모님은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만난 이야기, 헤어진 이야기, 다른 이성 만난 이야기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그 단계가 지나면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합니다. 이러면 우리 부모는 더 이상 해줄게 없습니다. 학비 대주고, 밥차려주고, 용돈 주고…

과연 이 아이들은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부모가 할 일은 이 아이들이 준비된 이성교제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 스스로 인생설계를 그려보게 하세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 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건지! 원하는 일 즉 장래직업이 뭔지...대학을 갈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라고 해보세요.

이성친구에게 내 아이의 인생계획표를 보여주고 또한 이성친구의 계획표도 같이 보세요. 서로의 계획을 멋지게 성취하는 큰 힘이 되라고 말 해보세요.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
(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 포천의료원 흉부외과 과장 **김준성**

정상 심장의 이해

1. 심장의 정상 위치

심장은 가슴 속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각뿔 모양으로 약간(1/3정도) 왼쪽으로 치우친 채로 횡격막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가슴 가운데쯤에 왼손엄지를 가로로 갖다 댑니다. 왼팔을 몸에 붙인 채로 손바닥을 수평으로 놓고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가볍게 주먹을 쥐세요. 바로 그 주먹 쥔 모양새가 여러분의 심장이 놓인 모습과 비슷합니다.

2. 심장과 심혈관의 구조

사람의 심장은 4 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방이라 불리는 두개의 방은, 피가 심실이라는 펌프로 보내지기 전에 잠시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 같은 곳으로 얇고 납작하여 보다 중요한 심실이 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심실이라 불리우는 두개의 방은 튼튼한 근육 펌프로서 각각 전신과 폐로 피를 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심장을 통한 혈액순환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고 정맥(정맥이란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함)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의 피가 머리쪽으로부터는 상공정맥이라는 대정맥을 통해, 하체에서는 하공정맥이란 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인 피는 우심방에서 대기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전 싸이클에 우심실에 고였던 피가 펌프질되어 폐로 내보내지는 순간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심실이 텅 비면 이제는 대기실(우심방)에 있던 피가 우심실로 이동되고 펌프작용에 의해 폐동맥을 타고 양쪽 폐로 운반됩니다. 폐 속에서는 폐모세혈관을 거치면서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속의 산소를 보충 받습니다. 폐모세혈관을 통과한 피는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피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로 탈바꿈되어 좌심실로 보내어져 대동맥(동맥이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관을 의미함)이라는 대혈관을 타고 전신 방방곡곡에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에 산소 배급을 끝내면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와서는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포천의료원 (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이번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중 특히 중요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A 이번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 법인은 이미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신고 안내문 뒷면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듯이 지난 년도 중에 개정된 세법중 일부는 이번에 신고하는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입니다.

2004. 7. 1부터 2006. 12. 31까지 기간중에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업종별로 상시근로자를 일정인원 이상, 즉 제조업 광업은 10인, 그 외는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하는 법인은 이번 신고부터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세액감면기간 중에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세액에 더하여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감면율(매년고용증가율 x 0.5)로서 최대 100%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둘째, 고용증대시 추가인원 1인당 1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상시근로자 인원이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 당해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경우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대기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 최소한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제의 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에게 감면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개정하여 이번 신고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 (02-404-9944)

포천시를 포함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정론지 역할을 해온 포천신문과 함께 할 의욕있는 기자를 찾습니다.

모집부문	인 원	자 격 요 건
취재기자	남녀 ○ 명	4년제 대졸이상

- 대 우 : 4대보험, 퇴직금, 연봉제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전형방법 : 1차 - 서류(E-mail), 2차 - 면접
- 접수기한 : 3월 21일 ~ 31일
- 접 수 : 내사 또는 E-mail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lF)
- E-mail : pcn90@unitel.co.kr
- 문 의 : 031-542-1506~7
- 홈페이지 : http://www.ipcs21.com (한글주소명 : 포천신문)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에 성원해 주신
포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회 포천민속경기대회는 더욱 알차고
뜻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임직원 일동